

## 유엔 전문가: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강제 송환 중단해야

제네바 (2023년 10월 17일) – 오늘 복수의 유엔 전문가\*는 중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이하 “북 이탈자”) 강제 북송의 대안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법상 보장된 재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유엔 전문가는 “중국이 대다수 여성으로 파악되는 북 이탈자 수백 명을 강제로 송환했다는 소식에 우려한다. 여러 국제인권단체가 강제 송환 중단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백 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강제 송환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알려진다.

이들 전문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된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북 이탈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송환된 개인이 “불법 월경”을 했을 시 “범죄자”로, “대한민국으로 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연관성이 있다면 “반역자”로 분류한다. “반역자”로 분류될 경우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수감되거나 강제실종을 당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을 비롯하여, 사형 집행과 강제실종을 포함한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어느 누구도 송환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또한 개인의 이주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예외없이 누구에게나 재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인권법, 난민법, 인도법, 관습법에 따른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송환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이어서 유엔 전문가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난민협약(1951) 및 그 의정서(1967) 등은 명시적으로 송환을 금지하는데, 중국은 앞서 언급한 두 협약의 당사국이라고 언급했다.

유엔 전문가는 “송환에 대한 우려를 표한 [공동 서한](#)에 대해 중국이 [공식 답변](#)을 제공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현재 해당국에 남아있는 북 이탈자를 강제로 송환하지 않도록 중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 재개방을 환영하며, 해당국이 유엔 기관을 비롯한 기타 인도주의 단체와 외교 공관의 복귀를 가능한 신속하게 허용하고, 인권이사회의 유관 특별절차와 협력하여 해당국 내 인권을 살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전문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본국으로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이는 고문 및 강제실종의 엄격한 금지와 자의적 구금 방지 및 공정한 재판의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끝

**유엔 전문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Elizabeth Salmón,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Aua Baldé(의장), Gabriella Citroni(부의장), Angkhana Neelapaijit, Grażyna Baranowska, Ana Lorena Delgadillo Perez), 여성 및 여아 대상 폭력 특별보고관 Reem Alsalem, 여성 및 여아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Dorothy Estrada-Tanck (의장), Ivana Radačić (부의장), Elizabeth Broderick, Meskerem Geset Techane, Melissa Upreti),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Priya Gopalan (의장), Matthew Gillett (서한 담당 부의장), Ganna Yudkivska (후속조치 담당 부의장), Miriam Estrada-Castillo, Mumba Malila)을 포함한다.**

상기 유엔 전문가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속한다.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추가 정보 및 언론 문의는 Madoka Saji ([madoka.saji@un.org](mailto:madoka.saji@un.org))에게 문의해주시시오.

기타 유엔 독립 전문가에 대한 언론 문의는 Maya Derouaz ([maya.derouaz@un.org](mailto:maya.derouaz@un.org)) 또는 Dharisha Indraguptha ([dharisha.indraguptha@un.org](mailto:dharisha.indraguptha@un.org))에게 연락주시시오.

트위터 계정(@UN\_SPExperts)에서 유엔 독립 전문가 관련 최신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Standup4humanrights  
<http://www.standup4humanrights.org>